

충북 인사들 오찬간담회

행정수도는 충청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도 추진해야

존경하는 충청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런저런 기준으로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충청도민들의 잔칫날 같습니다.

지금은 공단이 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송은 먹고사는 큰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알짜배기 산업이 IT, BT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창에 IT단지, 오송엔 BT단지가 들어서니까 알짜 먹거리가 충북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. 대강 계산해 보니까 BT 산업이 2012년까지 16조원 정도로 12배가 되는 셈입니다. 연구단지가 있으면 그 주변도 여러 가지가 잘 될 것입니다. 또 그 주변 대학이 좋아지고 또 덩달아서 좋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.

충북은 인기 있는 산업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충북도에는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어떤 기업이 발전할 것인가 지방대학과 손잡고 잘 활용하는 산업이 성공할 것입니다. 결국 충북도가 나라의 중심에서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섬처럼 단혀 있었으나 이제는 중심도 답게 그야말로 충북

의 미래는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.

행정수도는 충청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도 추진해야 합니다. 제가 77년도에 대전에 판사로 발령 받아 근무할 때 그때도 대전으로 수도가 온다고 해서 한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. 이후에 안 되어서 계약해제 소송이 넘쳐나고, 내가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. 그 이후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이 잘 안 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.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숨이 막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충청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, 충청도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선 때 충청도로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.

옛말에 충청도 분들이 “아버지 돌 굴러가유” 라며 느리다고 하는데, 그보다 옛말 같습니다. 지금 보니 동작 빠르고 생각도 빠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원종 지사가 빠른 것 같습니다. 정치가 시끄럽고 경제가 어렵습니다. 경제시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약기운이 돌지 않는다고 주사 놓고 약 먹이면 안 됩니다. 주사를 맞고 약기운이 돌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. 의사인 내게 맡겨주십시오. 약기운이 떨어져야 주사를 놓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. 경기는 때가 있습니다. 참여정부는 신용불량자를 300만 명이나 안고 출범했습니다. 차라리 실업자 300만 명이 낫지, 매일같이 전화 독촉을 받으며 살기 어렵습니다. 이제 경기가 바닥 쳤다고 하는데 곧 좋아질 것입니다. 정치가 매일 싸우고 시끄럽습니다. 그러나 86년부터 88년까지 나라가 발칵 뒤집힐 때도 경제는 10%씩 성장했었습니다. 공무원도 기업도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정치가 아주 시끄러워는 데도 경제는 잘 갔습니다. 새 질서가 잡힐 때는 시끄럽기 마련입니다. 이제 정치도 변화해야 합니다. 혼란스럽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. 재신임투표 제안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1,000억 원을 먹으

면 들썩들썩 했고, 지금은 100억만 해도 나라가 들썩합니다. 5년 뒤에는 1억만 되어도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. 이제는 측근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됩니다. 국민들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. 어려움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, 이 시끄러운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.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. 다 잘될 것입니다.